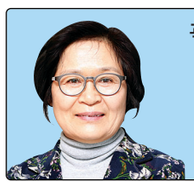


곽명희 제8대 포교사단장
'직지인심' 포교는
자신 낮추는 수행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월 13일) · 주간

제979호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마음은 모든 성자와 만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마음에서 오고
윤회의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20대 불교 신뢰도 증가 "청년 포교 여세 몰아야"

조계종 불교사회硏 · 기윤실 대국민 여론 조사 비교

한국의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신뢰를 주고 있는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 5일 발표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초보고서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이 2012년 11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기윤실의 조사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만19세~29세의 33.4%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

20대 국민 종교 신뢰도
두 조사 모두 불교 '최고'
30대 낮은 이유 분석해야

고 답했다. 가톨릭은 50대에서 32.4%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했다. 개신교는 전 연령에 걸쳐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2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와도 동일하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20대의 26%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다. 가톨릭은 전 연령대에 고루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지만, 개신교는 모든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불교와 개신교의 연구 기관이 다르기는 하나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20대 미만 청년들의 불교에 대한 신뢰도는 26%에서 33.4%로 증가 추세다.

두 조사 모두 동일하게 전체 신뢰도는 가톨릭이 가장 높고 불교는 2위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10~20대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다.

이는 최근 불교가 적극적으로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륜, 마가, 혜민, 정목 스님 등이 한국 사회의 힐링 열풍을 주도하며 국민 멘토로 자리매김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20대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불교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포교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20대 청년들이 불교를 신뢰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불교 수행과 신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포교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더 이상 기존 포교 방식인 조직화와 계몽적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10, 20대를 포교하기는 어렵다"면서 "문화, 힐링 프로그램이 접목된 새로운 방식의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2·2013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 (단위 : %)

		사례수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전체		1000	29.2	28.0	21.3
연령	만19~29대	196	26.6	33.4	18.9
	30대	208	29.4	21.0	24.2
	40대	245	29.1	30.4	19.7
	50대	22	32.4	27.3	21.0
	60대 이상	128	27.7	27.9	23.8

201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례수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전체		1000	27.1	23.8	11.2
연령	20대	215	19.1	26.0	9.3
	30대	251	26.7	18.3	9.6
	40대	235	29.8	18.7	9.4
	50대	104	36.5	24.0	12.5
	60대 이상	195	28.2	34.4	16.9

201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예비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사진 가운데)이 직접 선재의 선물인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사진은 전달식 직후 선물을 받은 학생, 학부모들과 자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선재의 선물'로 몸과 마음을 따뜻이

아름다운동행, 예비 초등생 508명에 책가방 · 학용품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선물-책가방 보내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전국의 저소득가정의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책가방 보내기 포장식 및 전달식에는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자공 스님, 아름다운 동행 지원단,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장 및 전달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진행됐다. 11시에는 선정된 예비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이사장 자승 스님이 직접 선재의 선물인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선재의 선물 책가방보내기'는 아름다운동행의 대표적인 국내지원사업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선재의 선물 책가방보내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약 3개월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약 3300만원이 모금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오현 스님 시조, 세계가 주목하다

〈문학사상〉 2월호 "오클라호마大 문예지 등에 집중 소개"

미국 문학지에 오현 스님의 시조가 집중 소개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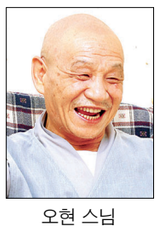
문학 월간지 〈문학사상〉 권영민 주간은 최근 발간한 2월호 '이달의 말'에서 "美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발간하는 전통문예지 〈WORLD LITERATURE TODAY〉가 지난해 9월호에 오현 스님의 시조 '오늘', '달마', '고목의 소리' 등을 번역해 집중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27년 창간된 이 문예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잡지 중 하나로 주로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유명 문학인들의 신작을 소개하고 있다.

오현 스님의 산문시인 '갈매기와 바다-절간 이야기 2', '다람쥐 두 마리-절간 이야기 3', '청개구리-절간 이야기 29' 등도 지난해 온라인 계간 문예지인 〈THE ADIRONDACK REVIEW〉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오현 스님의 문학작품들이 미국에 집중 소개할 수 있게 한 것은 하인즈 펜클(Heinz Insu Fenkl) 미국 뉴욕 주립대학 영문학과 부교수다. 불교의 선의 세계를 시조와 산문시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오현 스님의 작품에 주목하고 2012년부터 아시아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ASIA LITERARY REVIEW〉에 〈바위 소리〉 등의 시조를 번역하며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펜클 교수는 세계 불교시 전문지인 〈BUDDHIST POETRY REVIEW〉의 2012년 12월호에 시조 '춤 그리고 법뢰(法雷)', '떡느릅나무의 달' 등을 번역 수록했으며 생태주의 시전문지인 〈WRITTEN RIVER〉의 2012년 겨울호에 '허수아비' 등을 집중 소개 했다.



오현 스님

하인즈 펜클 교수

1927년 창간 유명 문예지
'WORLD LITERATURE…'
'오늘', '달마' 등 시조 수록
하인즈 펜클 교수 번역
스님 문학 전집 영역 준비중

이와 함께 권 주간은 현재 펜클 교수가 집중하고 있는 작업이 ㈜문학사상이 발간한 〈적멸을 위하여-조오현문학전집〉의 영역본이라고 밝혔다. 특히 펜클 교수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현 스님의 시조가 선 사상의 중심인 '공(空)'이나 '심(心)'과 같은 추상적 요소를 짧은 시작 형식에 담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다.

펜클 교수는 "오현 스님의 시조는 시 형식과 불교 정신이 교묘한 조화를 보여주며, 세계적인 '불교 시'로서 최고의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널리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 주간은 "펜클 교수의 번역 작업을 통해 〈적멸을 위하여-조오현 문학전집〉의 영역본이 출간되면 세계의 독자들이 오현 스님의 문학 세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014 연등회 일정 확정… 4월 26일 연등행렬

연등회 보존위, 연등회 노랫말도 공모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 연등회 일정을 공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연등회 어울림마당은 오는 4월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리며, 수만 연등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은 26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어 종각사거리에서는 제등행렬을 마무리하는 회향한마당이 성대하게 열린다.

4월 27일 정오부터 조계사 앞길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리며, 오후 7시부터는 흥겨운 노래 속에서 연등놀이가 진행된다. 전통등 전시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등회 보존위는 불교 전통과 현대음악의 창조적 조화를 바탕으로 불교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연등회 노랫말'을 공모한다. 연등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느낀 마음을 정리해 노랫말로 출품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